horizontal line

시세 App 테크 스펙

(React-Navite 시세 APP with TDD)

**작성자: 조영수**

**조직: 플랫폼 개발**

**마지막 수정일: 2022-06-09**

**프로덕트 스펙:  
JIRA ITS:**

# 요약 (Summary)

사용자가 게임과 서버의 기준별 금액과 등락(전일 평균가와 비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선택하면 서버목록과 서버별 평균가, 등락을 볼 수 있고

서버를 선택하면

여기에 이 테크 스펙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세요. 이 제안 전체에 대해 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왜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적으세요.

예) Bottom Navigation 영역(하단 탭)을 유저가 원하는 순서로 커스텀할 수 있게 합니다. 서버에 순서 정렬 및 저장 API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로컬에 저장하고 불러옵니다.

# 배경 (Background)

프로젝트의 Context를 적으세요. 왜 이걸 만드나?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이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었었나?

예) 다양한 탭을 사용하는 유저는 Segment에 따라 하단 탭의 노출 수와 사용 빈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의 추천 탭 노출 수 사이는 월 n만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저의 Segment에 맞춰 하단 탭 순서를 유저가 직접 커스텀할 수 있다면 뱅크샐러드가 개인화되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표 (Goals)

우리가 얻을 예상 결과들을 Bullet Point 형태로 나열하세요. 의도된 결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 모두요. 이 부분은 특히 여러 서비스들, 큰 코드베이스들 위에서 작업할 때 중요합니다. 이 목표들와 측정가능한 임팩트들을 이용해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한 목표와 임팩트들을 이뤄 냈는가?” 하고요.

예)

1. Bottom Navigation의 순서를 유저가 편집할 수 있게 한다.
2. 앱을 껐다 켰을 시에도 유저가 편집한 순서대로 하단 탭을 보이게 한다.

# 목표가 아닌 것 (Non-goals)

목표가 아닌 것이 직관적이지 않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아닌 것은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으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것 입니다. 목표가 아닌 것을 정하게 되면 프로젝트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 기능도 붙이자, 저 기능도 붙이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표처럼 목표가 아닌 것도 Bullet Point 형태로 읽기 쉽게 적어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목표가 아닌 것을 세부적으로 잘 적으면 프로젝트 범위를 넓게 보려 하는 독자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1. 사용하지 않는 탭의 삭제 기능 등 ‘순서 편집’ 외 하단 탭에 관련한 추가적인 기능 개발
2. 순서 정렬 및 저장 API 개발

# 계획 (Plan)

테크 문서에서 가장 긴 파트입니다. 당신이 준비한 모든 리서치, 준비 내용들을 씁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술적,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할지 상세히 묘사**하세요. 만약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다 목록화해서 적으세요**. 그러면 이 문서 **리뷰어들이 당신의 올바른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깊게 써야 하는지는 이 테크 스펙의 목적과 독자들에 따라 정합니다. 생산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적으세요.

여기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다른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을 포함하기 좋은 지점입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서비스와 API 간의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ERD 등 다 좋습니다.

이 테크 스펙이 로우 레벨까지 다뤄야 한다면 HTTP 응답 코드, JSON 요청 / 응답 포맷, 에러 명세 등까지 모두 다뤄져야 합니다.

# 보안, 개인정보, 리스크 (Security, Privacy, Risks)

이 프로젝트가 외부로 공개되는 서비스라면, 어떤 보안 위험이 있을지 리스트화하세요. 프로젝트 리스크를 따져 보면 리뷰어가 이 서비스, 제품을 비판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조명해 리뷰어들이 답을 제안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은 더욱 안정적이게 됩니다.

# 이외 고려사항들 (Other Considerations)

고려했었으나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들을 적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논의 되었던 주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이더라도 리뷰어들이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앱 데이터 초기화 시에는 사용자가 커스텀했던 리스트를 모두 날리기로 했었으나, 기존 로직에서 앱 데이터 초기화 시에 로컬 관련 추가 핸들링이 없어 이 기능에서도 앱 데이터 초기화 때에 리스트를 날리는 등 추가적인 기능 구현을 하지 않기로 함.

# 마일스톤 (Milestones)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략적인 마일스톤을 공유하세요.

예)

1. ~ 9/25: BPL 컴포넌트 개발
2. 9/28 ~ 9/29: 실험 변수 추가, 로컬 변수 추가
3. 9/30 ~ 10/4: 추석 연휴!
4. 10/5: 하단 탭 확장 가능한 구조로 리팩토링
5. 10/6 ~ 10/8: 비즈니스 로직 구현
6. 10/12 ~ 10/20: 사용자 이벤트 부착 및 미진한 내용 보충
7. 10/20: 2.45.0 코드 프리즈 (이때까지 내부 기능 테스트, 이벤트 로깅 테스트)
8. 10/21 ~ 10/23: 2.45.0 릴리즈 QA
9. 11/4: 2.45.0 Rollout

# 질문들 (Open Questions)

묻고 싶은 설계, 구현 질문들을 적으세요. 피드백을 받고 싶은 질문들도 적으세요. 가치 있는 의견을 줄 수 있는 특정 팀이나 사람에게 리뷰를 요청하는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단 탭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탭의 순서를 이벤트로 기록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팀에서 이렇게 해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지 컨펌해 주실 수 있나요?